

신의와 화합을 바탕으로 세계화를 질주하는 보성 파위텍 (주)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정보조사팀 이진형



▲ 반월공단에 위치한 본사 및 제1공장 전경 (왼에는 임도수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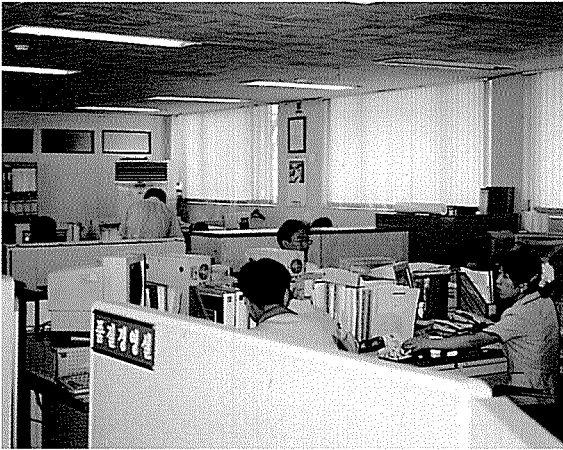
지난 1970년 창사이래 30여년간 한 우물만을 파며 마침내 국내 정상의 자리에 선 기업이 있다. 옥외용 가스차단기, 지중용 다회로 개폐기, 가스절연부하 개폐기 등 250여종의 생산품 모두 전기, 전력 관련 기자재만을 생산하는 보성 파위텍(대표이사 임도수)은 우리나라 중전기 산업을 선도하는 대표적 기업.

안산시 반월공단 내에 위치하고 있는 보성파

위텍은 160명의 종업원과 3개의 공장, 그리고 1개의 계열사만을 거느린 단출한 중소기업이지만 내실경영으로 더 유명하다.

지난 94년 업계 최초로 코스닥 시장에 등록하며 양질의 자본을 유치하는데 성공한 보성 파위텍은 지난해 매출 342원에 이어 올해는 4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 91년 중소기업으로는 드물게 부설연구



▲아늑한 분위기의 사무실

소를 설립하여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 업계 최초로 공심형접지 리액터(NRG) 및 SHUNT리액터를 개발하는 한편, 대용량 전선 퓨즈, 송전선로 낙뢰표시기 등 신제품 개발에 잇따라 성공했으며, 최근에는 디지털형 계량기 및 자동검침시스템 개발을 목적에 두고 있기도 하다.

또한 지난 95년 ISO 9002 인증을 98년 NT

마크, 그리고 99년엔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ITS사로부터 ISO 9001인증을 획득하는 등 차츰 기술력을 쌓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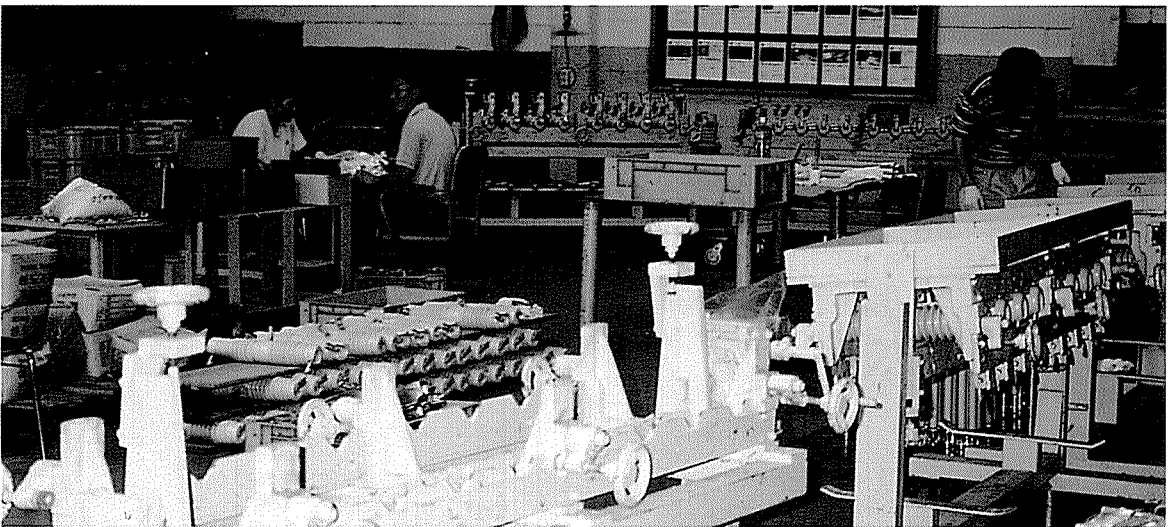
그러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던 보성 파워텍에게도 지난 IMF의 찬바람은 예외일 수 없었다.

창사이래 처음으로 경영실적이 적자를 기록했고 한 때 4만 8천원 까지 올랐던 주가는 곤두박질 쳤다.

그러나 보성파워텍은 40~50%에 이르는 아웃소싱(외주생산)을 통해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를 구축하며 자체 생산비중을 낮추는 한편 발빠른 구조조정을 통해 회사의 경쟁력을 키워나갔고, 직원들 또한 상여금을 자진 반납하는 등 회사 살리기 운동에 동참했다.

그러나 보성파워텍이 IMF의 험난한 파고를 넘으며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근본적 원인은 따로 있었다.

보성파워텍은 모든 기업들이 연구비를 줄일때



▲여유로운 공간의 생산현장



▲노사화합을 위한 한마음 체육대회

도 예년 수준인 10억원 이상을 연구개발 분야에 꾸준히 투자했고, 내수에 국한됐던 시장의 한계를 벗어나 일찍부터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해외시장에 눈을 돌리며 공격적 경영을 펼쳤던 것이다.

현재 보성파워텍은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한계를 극복하며 매출액 대비 10% 이상을 일본, 필리핀 등에 수출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해외시장 다변화 정책을 선언하며 중동지역, 탄자니아 등지로 수출선을 확대한 경과 울들어서만 총 15만불 상당의 해외계약을 성사시켰고,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여년간의 기술축적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전기 분야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보성파워텍은 차츰 전자부품·정보통신 등 고부가 사업분야로 눈을 돌리며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이미 보성파워텍은 99년 계열법인인 보성반도체를 설립, PCB를 대체할 차세대 반도체 부품인 세라믹 패키지 양산에 돌입했으며, 앞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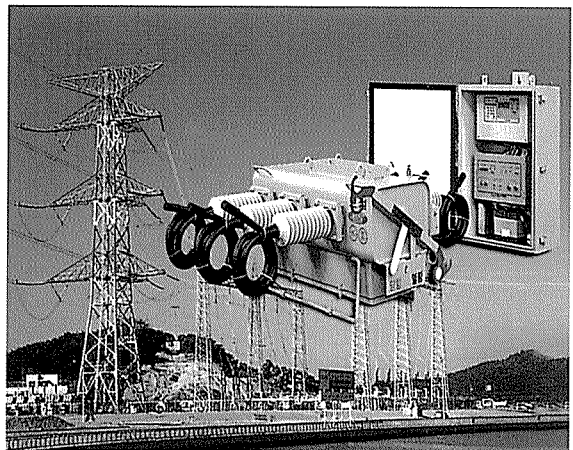
도 10억원 가량의 추가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내수요량이 6천만개에 달하는 세라믹 패키지는 PCB인쇄회로기판보다 절연성과 내구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초소형으로 제작이 가능해 PCS, 인공위성, 자동항법장치 등의 부품으로 각광받고 있어, 오는 2002년 쯤에는 2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임도수 회장은 “이제까지의 우리 보성의 모습은 서막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21세기형 고부가 가치 산업인 반도체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을 지켜봐 달라” 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임회장은 최근 안산상공회의소 업무관계로 수차례 중국을 다녀온 후 대중국 진출을 적극 고려하고 있으며, 또한 한전의 북한 전력사업 진출에 대비 신규사업 분야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설립 30여년이 경과한 지금도 노조없이 노사 협의회만으로 일등기업을 일궈낸 임 회장은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선 기업만의 독특한 기술력이 있어야 하지만 그 기술력을 뛰어난



▲ 송전철탑 & 변전소 철구 및 가스절연 부하 개폐기

수 있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의와 화합 뿐이다” 며 자신의 경영철학을 피력했다. 그러나 이러한 임회장의 인간적인 면 속에는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믿고 쓸수 있는 최고의 보성파워텍 제품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엿볼수 있다.

연혁

- 1970. 11.21 서울시 중구 입정동 221에서 자본금 2백만원으로 설립
- 1978. 07.01 현 경영진(대표이사 임도수)이 인수
- 1980. 10.20 본사 및 공장이전(반월공단)
- 1983. 09.10 미국 레이컴사와 기술제휴
- 1983. 09.10 제2공장 인수(목내동 388)
- 1985. 10.28 일본 김포전기와 기술 제휴
- 1990. 03.21 산업포장(대통령)
- 1991. 05.30 기업 부설연구소 설립
- 1991. 10.30 제3공장 인수(원시동 729-4)
- 1991. 11.21 상호변경(보성중전기(주))
- 1994. 08.19 ISO 9002 인증 획득(미국 ITS(사))
- 1994. 08.31 주식 장외 시장등록(증권협회)
- 1996. 05.29 일본 아사히 전기와 기술제휴
- 1998. 05. 유망 전력 벤처 기업선정
- 1998. 08.16 ISO 9001 인증획득(미국 ITS(사))
- 1998. 11.27 NT(신기술)마크 인증 획득
- 1999. 10.01 계열법인설립(보성반도체(주))
- 2000. 01.04 상호변경(보성파워텍 주식회사)

프로필

- 대표이사 : 임 도 수
- 종업원수 : 161명(연구인력 26명)
- 매 출 액 : 342억원
- 주생산품 : 송전철탑(T/L & D/L),
통신철탑, 지중선 공사자재
송배전용 금구류
정전기기 제품 및
전기보호장치

연락처

- 본사 : 경기도 안산시 원시동 731-2
TEL : 031-491-0311~20 FAX : 031-492-0780
- 서울사무소 : 강남구 신사동 592-10 임도빌딩
TEL : 02-543-2211 FAX : 02-544-1995
- 홈페이지 : www.bosungpower.co.kr
- E-Mail : bosung@bosungpower.co.kr